



총사업비 500억원을 투입, 88년말에 완공할 이 과학전시관에는 과학탐구동, 실험연구동, 대규모 자연관찰장이 건립된다.

災害 위험區域 건축물 用途 제한 1, 2, 3種구분 運動場 등 일부 許容

건설부는 재해위험구역을 3종으로 구분, 위험정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건설부가 마련한 건축조례중 개정령에 따르면 재해위험구역을 해일·홍수·산사태·토사및 지반의 붕괴 재해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 지역을 제1종 재해위험지구로, 재해에 따른 저해우려가 비교적 큰 구역을 제2종, 우려가 있는 구역을 3종으로 세분, 이 용도에 따라 건축을 제한하게 됐다.

이에따라 제1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묘지관련시설이나 △쓰레기 오물처리장 △군사시설(초소등 소규모시설) △동물관련시설 △공사용가설 건축물만을 허용토록 했다.

또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는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의 허용건축물과 존치기간 6개월이내의 가설건축물, 공중변소, 폐차장, 연면적 330㎡ 이내의 창고가 들어설 수 있게 했다.

제3종 재해위험구역에서의 허용건축물의 범위는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의 허용건축물 △관망탑 △휴게소 △운동장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야외음식당 △야외극장 △동식물원 △수족관 △자동차검사장 △자동차매매장 등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1종 구역에서의 건축구조는 철골·철근콘크리트나 시장·군수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며 2종에서는 1종내 허용구조물과 목조, 3종은 2종내 허용구조와 조적조 등이다.

위험지구내에서의 허용건축은 신축이나 증축, 개축, 이전을 포함하는 것인데 이같은 준칙의 개정에 따라 각 시도는 자체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공업地區內 공장規制 대폭 緩和 - 移轉대상업체 886개工場 양성화 -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도시지역의 공업지구가 아닌곳에 산재해있는 각종 공장에 대

한 규제를 대폭 완화, 양성화 해주기로 했다.

상공부가 마련, 금명간 경제장관협의회에서 확정짓기로 한 「생활용품의 수출산업화방안」에 따르면 현재 주거·비주거 및 상업지구 등에 산재해 있는 각종 영세기업과 하청공장에 대한 규제대상 제외범위를 현재 건축면적 100㎡ 상시종업원 10인 이상에서 건축면적 150㎡로 확대토록 하고 있다.

또 소음 및 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한 제외범위도 현재 재봉틀 20대에서 80대로, 선반기 10마력에서 20마력으로, 절단기 및 프레스 5마력에서 10마력 등으로 확대토록 했다.

이에따라 도시지역의 주거, 비주거 및 상업지구에 위치해 지방이전대상 업체로 분류돼 공장등록증을 받지 못하고 무허가로 돼 있던 886개 공장이 양성화돼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과 정부의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상공부는 이 방안에 따라 합성수지 및 금속제 완구의 수출물량을 대만, 홍콩 수준인 연 10억달러 선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완구용 금형개발에 특정연구개발자금을 지원, 전문기술연구소와 금형전문업체등이 공동개발토록 할 방침이다.

이어 완구업체의 금형개발제작자금에 대해서는 한국기술개발(주)이 모험 산업자금을 일반자금이나 성공불조건으로 소요자금의 80~90%까지 해당업체가 원하는 만큼 우선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이 특별보증지원토록 했다.

또 가구수출을 늘리기 위해 관세 환급절차를 간소화, 수출책정액과 소요량책정 및 소요량 인증발급에 시·도를 거치지 않고 임업시험장이 일원화해서 담당토록 했으며 조달청이 우수체육용구를 일괄구입해서 공립학교에 배정, 운동용구 생산업체를 지원토록 했다.

建築物 高級化로 裝飾유리需要 실내空間처리 장식용 등으로 人氣

유리의 용도가 다양해지고 고급화 되면서 장식유리가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건축물의 내외장용을 비롯 백열전구·진열장·테이블등 광범위하게 유리가 이용되면서 유리회화로 불리는

住宅 建築 취향이 바뀐다

- 아파트·聯立주택 多世帯 크게 각광 -

2세대이상 거주에 적합한 다세대 주택의 건설이 활기를 띄고 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건설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다세대주택건설이 크게 늘어 지난 9월 323동 1천355세대의 건축허가가 접수됐으며 10월 중에도 350동 2천세대분이 접수됐다는 것.

이처럼 다세대주택건설이 활기를 보이고 있는것은 지난 8월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다세대주택건설이 허용됐기 때문인데 세대별로 부엌이나 화장실등 주거 편의시설을 설치, 임차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입주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부는 특히 다세대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연립주택보다 지하실 설치요건을 완화한데다가 공동주택은 대지경계의 각방향으로부터 건물높이의 2분의 1이상 이격해야 했으나 연면적 330㎡ 이하의 다세대는 정북방향에서만 띄우면 되도록 했다.

또 1m까지의 외부계단을 건축면적에서 제외시켜주고 3세대이하의 주거전용지역에도 건축을 허용,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을 조성했다.

그런데 9, 10월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다세대주택은 1개동에 4~5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18평형 규모로 건축케 되는데 분양가격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공공부문의 국민주택분양가격선인 평당 115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규모 學生科學전시관 建立

서울 관악산 기슭에 대규모 학생과학전시관을 건립한다.

서울시교위는 관악구 봉천동 234 낙성대 남쪽에 학생과학전시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부지 1만7천696평을 확보했다.

스테인드글라스·엠티유리·베벨드 글라스 등 유리공예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스테인드글라스·을이제경·반도유리 등 내수를 위주로 하는 10여개 업체와 한보·로얄스테인드글라스·한익상사 등 수출위주의 10여개 메이커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유리공예품의 수요창출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스테인드글라스는 다양한 색상별 유리를 납으로 접합 유리회화의 효과를 얻는 것으로 거실의 창문장식용 등 실내환경조성과 성당이나, 교회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격이 디자인에 따라 m² 당 15만 원 정도로 비싸 최근에는 값싸게 기존유리에 장식적 효과를 가미할 수 있는 글라스벨이 개발, 예식장·일반접객업소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조각유리라 불리는 엠티유리는 5mm 이상의 후판유리에 아름다운 그림이나 글·문양 등을 새겨 유리에 예술성을 부여한 것으로 실내의 공간처리와 호화장식용으로 수요가 늘어가고 있다.

엠티유리는 맑은 유리뿐만 아니라 반사유리·색유리 등의 제품으로도 가공이 가능, 고급 실내장식·층계의 난간·기념패 등에 사용된다.

또 베벨드글라스는 모서리를 보석 연마기법에 의해 가공, 특수 금속테로 조립함으로써 문양과 색의 굴절프리즘현상 등 광학적 효과를 추구한 것으로 역시 실내·외 장식에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주문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住宅 전용面積 점차 넓어지

新築 4年 동안 4~10坪이나

택지난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축주택의 전용면적은 계속 대형화추세에 있어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부가 조사한 「신규주택의 전용면적현황」에 따르면 84년 신축주택의 평균주택면적은 28.3평으로 81년의 21.1평, 82년의 23.9평, 83년의 26.9평 등에 비해 해마다 넓어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공공주택은 81년의 14평에서 82년의 15.6평, 83년의 16.9평으로, 그리고 84년에는

18.5평으로 넓어졌고, 민간주택은 81년의 28.1평, 82년의 32.2평, 83년의 37평에서 84년에는 38평으로 대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축주택들은 불과 4년 동안에 4평(공공)~10평(민간)이 넓어진 셈이다.

이같은 현상은 현행주택분양제도가 대형주택건설에 유리하게끔 돼있을뿐 아니라 대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新築建物부설 「藝術品審査委」설치

서울市 作品内容 사전審査査査

서울시는 대형건물을 신축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건축물부설 예술품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술품심사위원회」(가칭)를 설치 작품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예술품의 설치를 방지하고 될수 있는한 우리의 역사와 전통, 또는 지역의 특성, 해당 건물의 업종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술품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대부분의 대형건물 건축주들이 서울시의 종용에 못이겨 형식적으로 저질의 예술품을 설치함에 따라 오히려 도시미관과 건물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설치될 건축물부설 예술품심사위원회는 미술·건축·조각 등 예술분야 전문가 10명 정도로 구성, 건축심의와는 별도로 예술품 설치계획안을 심의하되 제출된 작품의 심사뿐 아니라 사전에 해당 건축물에 맞는 수준높은 작품을 권유할 수 있게 하고 가격까지도 평가, 건물공사비의 1% 이상을 예술품 설치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규로 서울시건축조례에 따르면 11층 이상의 건물, 연건축면적 1만m²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조각, 회화, 벽화, 분수, 조형등·시계탑, 기념탑 등의 예술품을 설치하되 건물공사비의 1% 이상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市立 박물관 87년 着工

옛 서울高 자리에...「88」前 完工계획

서울시는 옛 서울고 부지에 세우기로한 시

립박물관 건립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가 「아시아게임 남은날 3백일」을 맞아 확정된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발굴작업이 진행중인 경희궁터 동쪽 2천평 대지에 약 1백76억원을 투입, 고유건축미를 살린 연면적 4천평 크기의 지하1층, 지상3층의 시립박물관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국내 최초의 「시립」박물관이 될 이 박물관은 내년에 설계를 공모하여 87년 착공, 88 올림픽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박물관 부대시설로 미술관과 무형문화재 공연시설 야외조각 전시장 등도 갖출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밖에 시립박물관에서 서울의 발전사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행정사·한강사·건설사·문화사 중심의 각종 유물및 사료를 모아 전시할 계획이다.

아파트 保温窓 등 설치 義務化

건설부검토 발코니·복도 施設기준 強化

아파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발코니 복도에 보온창을 설치토록 하는 등 아파트 보온구조가 강화된다.

건설부는 국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40% (서울시의 경우 68%)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등 건물분야에서의 에너지 절약에 극대화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방안의 내용은 설계 및 공법의 개발과 단열성능 등 각종 기준을 제정·보완하는 것 등이다.

그런데 주택의 경우 단열·보온처리를 완벽하게 하면 전혀 하지 않을때 보다 최고 40%의 열손실을 줄이는 단열효과를 얻을 수 있다.

86년 상반기까지 관련법규의 개정을 거쳐 시행될 에너지절약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절약형설계개발 = 에너지 절약형 공동주택(5종)과 태양열주택(단독·연립 각 3종)의 표준설계도 제정, 보급.

▶ 보온형 구조및 자재개발 =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열형 창호를 개발하고 보온창, 폐열회수장치의 설치를 권장.

▶ 기술기준제정 =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 온수, 온돌, 냉난방 등 설비설계 기준을 제정.

▶ 건물조명방식개선 = 절전을 위해 사무

실의 경우 외부의 자연광을 이용토록 창쪽의 조명등을 따로 소등할 수 있는 장치설치.

아파트단지에 地下주차장

노는 지하공간 활용 駐車수요 충족

○...아파트단지에도 지하주차장이 생긴다.

6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봉구 방학동에 2천6백52가구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하고 있는 신동아건설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아파트단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키로 했다.

신동아건설은 방학동 아파트단지의 법정주차장 수요인 1천1백6대중 10%인 1백8대 규모를 지하에 확보키로 하고 1개소당 3백평씩 4개소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키로 했다.

아파트건물과 건물사이에 조성되는 주차장과 녹지의 지하공간을 활용하게 되는데 폭 6m의 진입램프를 설치토록 돼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쓸모없이 버려져 있던 아파트단지의 지하공간을 활용하고 급증하는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건폐율·용적률 등 아파트 건축기준을 완화한후 법정주차면적인 2백50㎡ 당 1대꼴의 주차장을 모두 지상부문에 확보하기는 사실상 힘들어 아파트단지의 지하주차장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터미널 敷地에 複合건물 유원지내의 부대시설 건폐율 20%內

지금까지 규제돼왔던 버스터미널 자리에 사무실 및 호텔·여관 등 복합건축물 설치가 가능케 되고 유원지에는 규모에 따라 건폐율 20%까지 부대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복합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는 도시계획시설을 시장·운동장·철도역에서 버스터미널과 변전소로 확대하고 유원지설치기준 등을 완화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서는 공공시설인 버스터미널 부지에 업무용 및 숙박용 시설을 함께 갖출수 있게 하고 시내버스의 정류장도시·종점의 지역에 차고형태로 지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변전소시설 부지에는 폐열이용시설등 복합시설물을 지을 수 있게 했으며 도시계획 결정에 있어 심신장애자 편의시설을 추가토록 의무화키로 했다.

개정안서는 특히 유원지의 민자유치를 촉진키 위해 현재 일률적으로 유원지 면적의 10% 이하로 돼있는 부대시설 건폐율(바닥면적)을 완화, 유원지 규모가 3만㎡ 이하 일때는 10%이하, 3만~10만㎡ 이하는 15% 이하, 10만㎡ 이상은 20% 이하로 조정했다.

民間아파트 16층이상 짓는다 서울시 宅地 효율활용 어려워 規制완화

그동안 민간부문에서 규제됐던 16층이상의 초고층아파트 건축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용적률 등 아파트 건축기준을 완화한데 이어 지금까지 소방상의 이유로 규제해온 층수제한도 풀어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목동신시가지·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등 공동부문에서는 20층아파트를 건립하면서도 민간부문에서는 16층이상 아파트는 건축허가과정에서 규제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부지값이 크게 오른데다 택지확보가 사실상 한계에 달하고 있어 효율적인 택지활용이 시급한데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건폐율·용적률의 완화가 층수규제에 묶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민간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층수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17층짜리 아파트의 건축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던 라이프주택개발의 강남구 신사동 미성2차 아파트가 처음으로 층수완화 혜택을 보게 됐다.

라이프주택개발은 당초 이 지역에 14층짜리 6동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아파트 건축기준이 완화된후 건축계획을 변경, 17층짜리 9동을 건립키로 하고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었다.

내 시간이 소중하면 남의 시간 존중하자